



정교회주보

제2484호

2024.08.04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483년에 세워진 성 사바스 수도원(사진은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요르단강 서안 지구 키드론 계곡에서 내려다보이는 광야에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지만 지금도 수도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고대 전통의 많은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 설립자 성 사바스는 532년 이 수도원에서 93세의 일기로 안식하였다.



마태오 제6주일
에페소의 7인 청년 순교자들
(제5조 • 조과 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82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12,6~14 ..(봉) 162
- 복음경 : 마태오 9,1~8 11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너의 죄가 용서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실 때 에둘러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들이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현실로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춰진 상처들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교리나 사상을 주제로 한 대화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교리를 깊이 있게 가르쳐주시는 것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저 '일반적인 메시지'나 들었으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에 초점을 맞추길 원하시기 때문에, 가파르나움의 중풍병자에게도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오 9,1~8 참조)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자유인이 되려면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 자기 동네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여라.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 하셨다.’(마태오 9,1-2)

이 중풍병자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육신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주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에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참된 사람으로 사셨기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면서 왕 중의 왕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는 주님의 계명 없이 노예로 종살이를 하며 구속받는

삶을 살았으나, 예언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는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기에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쌓여가는 죄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곤 한다.

우리는 언제 과연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바라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킬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참사람이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우리의 지난 행동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때 비로소 죄를 짊어지고 사는 노예와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아래의 대화는 어느 수련회에서 촌극을 할 때 쓰였다. 두 명의 배우가 있다. 하나는 똑똑한 기자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이다. 기자는 끈질기게 질문을 하고, 젊은이는 부자가 되어 유명해지고 싶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

기자: 자, 젊은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지 말해보세요.

젊은이: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겠습니다.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대학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법률을 공부하겠습니다.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지요.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법률사무소를 열겠습니다.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돈을 벌어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할 겁니다.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일을 하면서 자녀를 낳겠습니다.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도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야지요.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여행을 하면서 노후를 즐기겠습니다.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글썄요. 다른 사람들처럼 점점 더 늙어 가겠죠.

기자: 그런 다음에는?

젊은이: 더 뭐 기대할 것이 있나요? 더 이상은 없을 거 같은데...

기자: 그런 다음에는? 죽지 않나요? 누구나 언젠가는 죽지요...

젊은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생각하기도 싫고... 두려워요!

기자: 하지만 죽음은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니까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나요? 지옥이 두렵지 않나요?

복음서는 말한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마태오 6,33)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서 성공하고 죽음 이후의 삶마저 정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의지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화요일(8월 6일)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입니다. 축일을 맞는 수도원 공동체의 모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총대주교 메시지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는 지난 26일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림픽 게임은 전 세계 수백만 인류의 관심을 끄는 최고의 스포츠 행사이며, 개막식은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파리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그리스도교와 거룩한 복음에 대한 공격적인 공연, 종교적 상징을 믿고 존중할 권리를 가진 모든 문명인을 위한 공격적인 공연을 보며 우리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개막식을 빛나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훼손시켰습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혐오와 불만을 표출한 것이 의사 결정자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했기를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간 예배 안내

* 8월 6일(화)

구세주 변모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안내
8월 6일(수)의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성찬예배에 참여하실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미국에 거주하던 미카엘 문대현 교우가 지난 7월 24일 지병으로 현지에서 안식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고인의 영혼을 고통 없는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알림

■ 대교구 여름 수련회 소식

지난 7월 26일-28일, 춘천 성 보리스 성당에서 신데즈모스 여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청년(세례신자, 예비신자)이 참여한 가운데, 신앙교육과 예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주제인 '선교'에 대해 강론,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그밖에도 산책, 박물관 견학, 오락 등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는 중고등부 기간을 거쳐 현재 초등부 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천주교 신자들의 서울 성당 방문

타종교의 성직자와 신자들이 정교회의 신학, 역사, 예배, 예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 지역 성당을 방문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월)에는 천주교 장성동 성당(경북 포항)에서 중고등학생, 교사, 사제, 부제 등 총 36명이 서울 성당을 방문하여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로부터 정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